

#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열린교회 신문 2021.11 vol.317



## 말씀 솔루션

### 빛덩어리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완전히 이방문화에 젖어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좋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생활과 같은 연단이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성하는 악인도 있고 고난 받는 의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의 쉼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살아보아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애굽의 열 재앙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 행진은 얼마나 위용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나 곧 이어서 만난 홍해의 경험이나 물이 없어 고통하던 마라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려고 하는 악한 경향성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극악하게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에도 당신의 자녀들이 낙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적절하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덩어리입니다. 이 큰 사랑을 힘입으면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중 아무도 나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진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사명으로 갚아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께 감사하라III>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공급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가장 감사할 제목/회복의 은혜에 감사함 네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김남준 담임목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 들어가는 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불편한 환경,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사는 사람인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신앙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시련과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불행은 곱씹으며 인생을 낭비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 섭리, 숨겨진 뜻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뜻이 있고,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은 드러난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숨겨진 뜻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바뀌며 조금씩 드러납니다. 마치 두루마리에 편지가 쓰여 있으나 펼쳐진 것만큼만 보이다가 모두 펼쳐졌을 때 편지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해주신 꿈이었습니다(창 37:6-10). 물론 그가 아직 어린 나이로 그 꿈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

으로 그 꿈을 실현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형들이 모두 절하게 될 정도로 자기를 높일 것이라는 메시지는 어린 마음에도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애굽 노예로 팔려가 그곳에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결과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고 보디발의 아내가 잡는 걸옷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창 39:10). 신앙의 정절을 지킨 대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계속 그래왔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지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요셉에게 애굽에서의 삶이 찬송의 제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의 고난이 그에게 얼마나 힘에 넘치는 시련이었는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창 41:51). 그렇지만 그는 그 지난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뜻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나 나쁜 때나 그분의 섭리를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시험에 들었다거나 불평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맡겨진 바에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평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에게는 없는 큰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창 39:23). 그에게 일어난 나쁜 일은 그때에는 나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더니 그 나쁜 일들은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길을 제시함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서른 살이었습니다(창 41:46). 당시 남자 나이 서른은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 최소 연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정해 놓으시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를 이으셔서 마지막에 그가 애

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직책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 감사와 믿음

요셉 자신도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자로 잔 듯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사에 있어서 요셉의 위치는 매



## 두루마리 편지처럼 조금씩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

해, 달,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으나 꿈과는 다르게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가능케 해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사 제목들을 찾게 해



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 나아가 만민까지 구원하는 역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한 가족 혹은 씨족에 머물렀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극히 번성하게 하여 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전환점에 바로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훈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셨던 비전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살아갑니다. 감사해야 할 조건들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자루의 흙에서 쇠를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루를 확 쏟아 흙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하나 하나 만지며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커다란 말굽자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천히 자석을 흙 속에 집어넣고 이리저리 움직이니 쇠가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쇠가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의 제목들이라면 말굽자석은 믿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 맺음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좋은 일로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나빠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선한 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때나 모를 때나, 깨달을 때나 못 깨달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이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에 믿음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

### 담임목사 동정

- 11.2 라이브 구역강의
- 11.7 신임 제직 교육
- 11.11 웨스트민스터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 (WTS KDMin) 강의
- 11.13 유아세례식
- 11.14 학습, 세례, 입교식
- 11.20 당회 수련회
- 11.21 임직자 선거

###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 기독교(CBS) 방송 매주 금요일 '라디오 강단' 오후 9시 30분 (FM 98.1MHz)
- 대전 기독교방송 매 주일 '여호와와 나의 목자' 오후 4시 (FM 93.3MHz)
- 포항 기독교방송 매 주 월요일 '오늘의 양식' 오전 6시 30분 (FM 90.3MHz)
- 울산 기독교방송 매 주 목요일 '참된 삶을 향하여' 오전 6시 (FM 107.3MHz)
- 창원 기독교방송 매 주 화요일 '오직 복음으로' 오전 6시 30분 (FM 92.5MHz)
- 전북 기독교방송 매 주 월요일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오전 6시 30분 (FM 91.1MHz)

### 인터넷 설교방송

· 기독교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가을말씀사경회 취재

# “기억하라, 회상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연일 대선후보들의 ‘옛’ 말들과 행위들이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부정적인 내용들이고, 상대 정당의 주요 후보들을 흠집내기 위해 들춰낸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사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와중에 열린교회에서는 ‘사랑의 줄로 이끄신 하나님(호 11:4)’이라는 주제로 가을말씀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도 옛적 일을 ‘기억’ ‘회상’ ‘잊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 오전 10시 40분부터는 현장집회가 열렸고, 오후 7시 30분부터는 실시간과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아이들 사경회도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온 사경회가 모처럼 대면과 비대면 양방으로 열렸으니 대면 예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배고프면, 대면 비대면 가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설교자와 눈을 맞출 수 있는 현장 예배가 주는 역동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회에서 강조되었던 키워드 중심으로 선포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가을말씀사경회 후기

#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기



장욱 장년2교구  
changeup71@naver.com



노트 뒷장에 동전을 놓고 연필로 긁어본다. 노트 뒷면에 있던 동전의 모습이 그대로 베껴 나온다. 어릴 때 노트나 책에 이런 장난을 많이 했다. 참 신기했다. 노트에 동전 모습이 그대로 베껴 나오는 것이 그랬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곤 한다. 노트 뒷면에 놓인 동전이 희미해지다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 때 ‘아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이리저러한 환경과 사건 등을 통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하고 뒤늦게 깨닫게 된다.

이번 가을말씀사경회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는다. 사경회 시작 전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사경회 후기 요청을 받았다.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막상 후기를 쓰기로 했지만 이내 겁이 덜컥 났다. 은혜에도 겹투자가 있는 걸까. 사경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글짓기를 하는 죄를 짓는다는 부담감이 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을말씀사경회에 강력하게 초청하신 것을 보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실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번 사경회 목적도 세상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가?”라고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때는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요. 그러나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며, 이 땅에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단독자’로서 살아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며,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느낄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해결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멍에를 벗을 힘도, 우리 자신을 고칠 힘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라, 회상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타락의 수렁을 걷고 있던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의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줄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의 걸음마를 돕듯,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이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섭섭함을 ‘기억’하며 원망하지만, 좋은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선대한 것들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선대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공감이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당시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서 몸을 팔던 여인을 아내로 두었고, 수시로 남편과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에 심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 헤매십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그 분의 마음을 공감했던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으로 피를 토하듯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공감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수받게 되고, 주변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장으로 나아갑니다.

**에필로그-**

사경회 집회 말씀을 되뇌이자니 눈물이 납니다. 애써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더라도, 현재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분을 모독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빛바랜 사진’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등에 무거운 죄의 멍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억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절규 앞에서 반응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영적 각성을 허락하소서!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사경회 첫날 목사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하나님 품에서 신앙의 걸음마를 걸던 그때 그 추억 속의 사진을 떠올리게 하셨다. 신앙의 걸음마를 걷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들로 나를 반복적으로 연습시키신 그 세심한 배려도 생각나게 하셨다. 그 사랑의 줄이 동물의 멍에와 다르다는 말씀은 큰 위안이었다. 강압적이지 않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다. 그 추억 속의 사진을 잊고 지낸 이유가 현실을 핑계되며 끊임없이 합리화를 하는 내 자신에 있었다는 것을 꼭 짚어주셨다. 내 마음 곳곳을 포렌식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기보다 세상 품을 파고드는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신앙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감, 사람을 향한 공감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신앙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에서 주님의 아픔과 슬픔, 기쁨을 온전히 내가 공감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인생의 문제가 무거운 것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공활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공활

로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 신앙이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나도 하나님의 공활하심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 공활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 품을 다시 찾게 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다.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게 한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사는 것임을 목사님이 늘 일깨워주신다. 그럼에도 나는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 없이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왔던가. 기도할 이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희미해지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선 안 된다는 말씀 또한 지금 내 삶을 빗대어 하신 말씀 같았다.

“하나님 공활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 받으라.” 이번 가을말씀사경회를 통해 내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다. 이번 사경회는 끊임없이 현실을 핑계대며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내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이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던가. 이제 그 지긋지긋한 영적 알츠하이머, 멧튀(?)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께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주님과 함께 가벼운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

끝품 소개

# 끝까지 품는 교사들, '끝품'을 시작하며

모든 사람의 가늠을 뛰어넘어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사역과 업무들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면 선방한것으로 평가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서 열린교회 교회학교로부터 들려온 단비와 같은 소식을 소개합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품어내는 그릇을 키워서 신앙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한 선한 시도로서, 전문적이고 섬세한 지식을 가지고 양육해야 할 특수학생들을 촘촘하게 돕고자 하는 모임을 개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섬겨주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초청된 분들이 아니라 대

부분 이미 교회 안에서 각자 섬기고 있던 전문가로서, 개인으로 섬길 때 발휘되지 못했던 전문성을 그 지식이 필요한 대상(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매칭해 줌으로써 지식의 바람직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임은 교회학교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있었던 한 모임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시작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요청한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교회학교 디렉터를 비롯한 교역자 분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도 감동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편집부

## 끝품이 탄생하기까지



올 해 초, 교회학교에서 '부장·부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장·부감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목양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서로를 독려하며 각 부서에 어려움은 없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한 부장선생님이 목양하던 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부서의 한 아이가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았는데, 신체적 고통과 함께 심리적인 어려움(정서불안증상)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목양해야할지 몰라 힘들었고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 및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제가 교회학교 내에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상담 및 특수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교회학교를 돕고자하는 분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때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조금 다른 아이, 느린 아이를 차별해 따로 떼어 교육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르더라도 느리더라도 곁을 내어주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했으면 해요." 그렇게 끝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끝품, '끝까지 품는 교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하여 품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내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목적을 담게 되었습니다.

끝품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어떻게 현장의 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려 강의를 제작해 제공하고 부서를 맡아 교사들을 면담해주는 일을 진행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교회학교 목양 시 도움을 받고 싶은 강의주제'라는 설문을 실시하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목양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교육 받고 싶은 주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선생님들이 목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 3가지의 주제, '각 부서의 아이들의 발달과정',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미디어중독'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끝품은 약 2개월간 강의를 준비하며 제작하였고 지난 10월10일(주일)에 총6개의 강의를 교회학교에 공유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끝품은 부서의 전도사님들과 협력하며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일대일 면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면담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학부모 및 아이들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품면담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작지만 요긴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의 교역자, 교사, 끝품 면담자가 한 삼각형을 이루어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회학교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하경(유치부 담당 전도사)

## 끝품을 섬기는 사람들(가나다순)



제가 고등부 학생이던 때, 여름 수련회에서 들었던 말씀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때 목사님께서 "배워서 남 주자"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었고,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늘 품어왔던 이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끝품'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끝품을 통해 사랑하는 교회학교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민선(서울시 아이존 인턴/한양아동가족센터 상담연구원, 유년부 담당)

'끝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학교 아동·청소년 한 명을 끝까지 품고자 한다는 전도사님의 권유 메시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처음에 끝품 관련한 소개 및 참여 제안 문자를 받고서는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교회에서 품기에는 교



사의 역할과 권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단 번에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기관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안 받은 활동에 대한 회의감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거절 메시지에도 교회 공동체로서 한 영혼을 품고자 한다는 전도사님의 회신 메시지가 마음에 남아 있었고, 몇 개월 후 실제적인 준비를 앞두고 다시 제안을 하셨을 때, 그리고 교사들이 목양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학생들의 미디어중독이라는 설문 결과를 보았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그마한 전문성으로 교회학교 교사 분들의 목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끝품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신명(미디어과의존 상담전문/서울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상담팀장, 고등부 담당)



먼저 부족한 저에게 '끝품' 모임에서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긴 터널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이런 귀한 사역으로 불러주심에 더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끝품 모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섬김을 결단하기까지 고민을 했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집사님들께서 헌신하시는 모습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9%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2021. 10. 11. SBS 뉴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도 하루 수십 명의 청소년이 자살사고와 우울감,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대면 예매의 기회가 줄어든 현 상황에서, 교회 안의 우리 아이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끝품 모임을 시작하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품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은정(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소속, 미취학부 담당)



현재 저는 중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였습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공부 잘하는 오빠 그늘에 가려 존재인 감 없이 늘 외로워했고 매일 죽고 싶어 했습니다. 중3때 학교 선생님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었죠. 진로를 결정하면서 저처럼 마음이 아픈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서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고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부서에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사로 일하게 하시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직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상담이나 특수교육 관련 선생님들이 모여 여러 번의 회의 끝에 각 부서에 필요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끝품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 지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고민이나 궁금하시고 조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담당교역자 통해) 요청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주(15년차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중등부 담당)



처음 이 사역에 대한 섬김을 제안 받았을 때는 큰 고민 없이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역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과연 저의 경력이 도움이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사님께서 이 사역을 '끝까지 품는 교사'라는 뜻의 '끝품'으로 이름 짓고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진심으로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지며 불안하고 주저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교육적 필요를 잘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는 일에 이 사역이 귀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저의 부족함은 여전하지만 선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일혜(서울시교육청 소속 유아특수교사, 미취학부 담당)



안녕하세요. 장년 1교구 조영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교육현장에서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과 교육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학업적, 정서적 지원에 관한 교육학적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등부 등불학교 교사로 참여하였다가 전도사님의 소개로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장애학생과 정서 및 행동상의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는 말씀을 듣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업 및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10차례 이상의 중재를 진행하는데 교회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교회학교 교사분들의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과 함께하는 전도사님의 열정으로 조금이나마 저의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사각지대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학생 개인의 문제이든, 시스템의 문제이든 목양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품지 못했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의 깊은 사랑으로 변화받는 학생들도 있듯이, 저희들의 이러한 지원과 도움이 조금이나마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들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조영희(서울대 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초등부 담당)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황미경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음세대들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과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담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음세대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교회학교에서 '끝품'이라는 모임에 함께하자고 권유를 받았을 때 유익한 모임이 생길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끝품 모임을 통해 다음세대를 목양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드리며 함께 동역하는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미경(경기도 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 소년부 담당)

인터뷰/황철호 장로님(서기장로)

# 신임 장로 선출을 앞두고



황철호 장년2교구  
jml104410@gmail.com

(교회는 오는 11월 21일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임직자 선거에서 당선된 장로와 안수집사, 시무권사 피택자들은 임직 전까지 6개월간 피택 임직자 교육 및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편집부)

### 1. 코로나 가운데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신임 장로들을 선출해야 할 교회적 필요성

일부 시무장로께서 총회에서 정한 정년에 따른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에 신임장로들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임직자 선거를 2021년으로 연기하였고,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계획대로 임직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2. 장로선출의 과정(10월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보고와 앞으로의 월별 진행 계획)

####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 9월 26일 정기당회에서 장로 임직 선거계획 및 후보자 추천기준 확정
- 10월 10일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 선정
- 10월 18-19일 전체 구역장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10월 20일 임직 후보자 1차 심의
- 10월 24일 임시당회에서 임직 추천자 최종 심의 및 확정

#### ▶ 향후 진행 계획

- 10월 31일~11월 6일 추천 대상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최종 후보자 확정
- 11월 7일 임직 후보자 공고
- 11월 21일 임시 공동의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임직대상자 최종 확정

### 3.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

앞으로 이루어질 임직 후보자 면담과 임직 선거 과정에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 선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전도사례세미나 후기

#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한나 장년4교구  
lhanna21@nate.com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가을말씀사경회를 앞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건강이 좀 약한 편인데 유독 더 난 좋아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다. 특별새벽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마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사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열린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열린교회도 코로나 이후에는 새가족들이 거의 안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곤고한 영혼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또는 자발적으로 찾아와 말씀을 듣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저에게도 곤고한 시절이 있었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시켜주셨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던 마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며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하나님을 떠나 나보다 훨씬 더 곤고한 영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어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새가족

#### ▶▶ 장년

- 김숙희(85)
- 윤혜민(84)
- 최미란(86)
- 최세광(87)
- 이흥태(72)
- 박성갑(76)
- 박춘란(67)
- 김성숙(75)
- 조미선(68)

#### ▶▶ 청년

- 구민호(83)
- 지아름(87)
- 강승현(62)
- 김민경(62)
- 김선옥(62)
- 방영호(85)
- 최성경(87)
- 배주희(90)

- 윤진경(87)
- 김아연(99)
- 김정은(91)
- 강지호(92)
- 최주은(01)
- 조윤희(95)

기도빌드업 후기

# 하늘자원을 구할 때 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최금주 장년2교구  
kumju65361294@gmail.com



●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나의 일상과 삶의 풍경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곧 편안해졌고 오히려 비대면의 상황들이 여유롭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편안함과 느슨함에 매몰되어 점점 나태한 일상이 반복되고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빌드업'이라고 하여 특별작정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 **매일 기도의 자리에 서겠다는** 부담감을 피해 한 번의 시간을 신청하고 그 시간을 지켜 간절함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섬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저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 **작정기도를 시작하기 전,** 오랜 시간 구역 지체들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요약과 나눔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넓어졌으나 일시적인 은혜, 순간의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셨으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입증하며 살아갈 힘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은 세상 지식처럼 나의 지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도구가 되었고, 그것은 더욱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으며, 그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영혼은 늘 탄식 속에 있었고 진정한 회개의 시간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큰 어려움 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마음이 컸기에 기도하지 않던 삶에서 돌이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정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 **여러 날을 심연의 깊은 탄식으로** "아버지"하고 부르며 한마디의 구체적인 언어도 길어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그 울음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던 내 영혼의 피폐함이 느껴졌고, 죽었던 죄인을 기다리고 보호해 주신 지난날의 놀라운 은혜들이 전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여러 구절들 속에 의미가 부여되며 온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생명체가 활기 넘치는 영적인 존재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 **그렇게 기도하던 중,** 어느 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물리적인 경험이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이후 섬김의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섬김조차도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해 내고 있었던 세속적인 영혼의 상

태와 생명 없는 사랑을 유통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교사라는 자리에서 직무유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내용 없는 경건, 진리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처럼 가르쳤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시고, 그 뜻을 감당할 마음을 주시니 아이들의 파리해진 영혼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서 감당할 목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과 관심의 이동으로 하늘의 자원을 구하는 일에 집중할 때, 땅의 자원도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섬기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의 갈구를 보게 하시고 영적, 육적 자원을 함께 나누게 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자원을 나누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 **소망하기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의 깊은 묵상과 날마다 부여주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

경주자(교역자칼럼)2

## 가족 전도의 꿈



김민정 영아부 담당 전도사  
r1aalswjd511@naver.com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절에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이신 시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비록 거리두기로 인해 줌으로 모였지만,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저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8살, 저는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친구의 말을 따라 교회에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따스한 교회 분위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심 이후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나 이렇게 온 가족이 손 잡고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엄마와 언니를 먼저 교회에 몇 번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족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반복되는 실패로 가정 전도에 대한 열망이 식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다시 힘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젠가 담임목사님께서 가정의 달 설교 중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회심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불신자 부모를 둔 자녀는, 그 부모를 위

해 전심으로 눈물을 흘려야 한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고 기도하듯이, 자녀는 불신자 부모를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다시금 도전을 받았지만 실패의 두려움에 실천하기를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을 통해 힘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부모님과 가정을 전도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마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후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첫 명절에 인생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영아부에서 어린 영혼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등,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럴수록 가족을 향한 기도의 마음 또한 깊어졌습니다.

가족 전도의 꿈! 막연한 줄로만 알았던 그 꿈이 이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 이루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힘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가족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족 전도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있으신가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11월 추천도서

### 삶이 전도한다

이병욱/아르카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 행복하니까 전도하는 것이기에, 그냥 행복하게 살면서 전도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다니는 곳이 어디든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삶은 저의 생활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삶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이 전도입니다. 삶이 전도합니다.

\_에필로그 중에서

11월 주요사역일정

6일(토)~20일(토) 태아부 '아이 소망 스쿨'

7일(주일)~28일(주일) 신임 제직 교육

10일(수) 기도세미나

13일(토) 유아세례식

14일(주일) 학습, 세례, 입교식

20일(토) 당회 수련회

21일(주일) 추수감사주일/공동의회(임직자 선거)

28일(주일) 각 교구 총회

청취후기/극동방송라디오말씀사경회

# 인생의 밤을 지나는 빛의 자녀들

지난 10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매일 오후 9시에 담임목사님 설교로 극동방송 라디오 말씀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진 이번 사경회는 극동방송 최초로 전국 13개 지역으로 동시에 송출되었습니다. 방송 청취 이후 극동방송 게시판에 포스팅된 수많은 소감문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편집부

**목**사님 출타로 새벽예배 설교 준비하며 사경회 청취한 전도사입니다. 대학 시절 사경회며, 지역 내 교회들과 연합하여 개최하는 사경회에 참여하며 말씀 듣던 때가 생각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없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사경회를 참여하여 전국에서 다 함께 귀한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니 좋네요. 우리 교회 화요기도팀과도 오늘 사경회 말씀 공유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내려 주시는 은혜의 비로 생존을 너머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길 기대하며 감사하며 남은 사경회 기대합니다.

**동**화구연처럼 귀에 쏙쏙 들려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힘겨운 때인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연약할 때 까마귀들을 통해 육적 공급과 영적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들음으로 제 마음에도 위로를 주십니다. 제게도 주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시대 말씀이 무너져간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항상 변함 없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입히고 먹이시는 여호와께서 늘 함께하심을 목상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기근 속에서도 힘을 얻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가길 기도합니다. 가을밤 김남준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니다.

**20**여 년 만에 김남준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패하고 악한 아합왕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고, 악하고 음란하고 암흑의 시대인 지금도 신실한 자녀를 보내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겨우 생존하며 거미줄 같은 나의 믿음에도 나를 극상품 포도가 되길 기대하신다는 말씀에 주님께 너무 황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떨어뜨리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가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남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의 불편함 때문에 회복을 꿈꾸다가 다시 더 깊은 침체로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잘 될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으로 살았던 내가 수능 실패에 한순간 나의 영혼이 수렁에 빠지면서 그 이후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늘 갈급함과 외로움 가운데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데도 더 좋아해야 할 나의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하고 점점 더 괴로워지더라구요. 그러다 류머티스라는 질환으로 온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2년간 교회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지 않는 자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목사

님 말씀처럼 믿는 자의 행실과 믿음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려움과 고통도 은혜임을 이제는 잊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까지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믿음을 잃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할 만한 것들이어서였는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7년의 불신앙의 시간을 보내다 남편이 고소를 당하며 1년 넘게 재판받을 때 몇 달 전 구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고 구속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개입하시고 계신 것인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여 구속되자마자 극동방송을 종일 듣고 지내고, 성경 듣기를 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전파선 교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너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 이후 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난 세월 저의 죄에 대해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사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의 일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선고가 나는 날, 마지막으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법원에 들어갔을 때, 크게 감형되어 기대하지 않게 기적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생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움의 터널이 오히려 소망의 시작임을 절절하게 체험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인 나는 살 수 없으니 믿음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거나 영적 침체에 빠진 믿음의 형제님들도 이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 믿음도 회복시켜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상황은 여전히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따가 이런 거구나 경험한 오늘, 사경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내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지금까지 그래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믿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헛것이 되었다, (생각하는) 순간 자존감이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두움 속에 있고 고난 중이고 환란 중이라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본받아) 빛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반드시 이김 주심을 믿고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곰곰이 생각

## 기도가 주님을 가릴 때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기도제목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오직 내 앞에는  
기도제목만 있구나!



매일매일 기도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일년내내  
기도제목에 둘러싸여 사는 것 같아!

주님보다 기도제목을 너무 가까이 둘 때 그렇습니다.

주님,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보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나 봅니다.

아! 주님이 보이니,  
세상이 보이는구나!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만남 품은 열린교인

# 재활용품장에서 발견한 보물



윤은실 장년1교구  
yune55@hanmail.net

**전도사님으로부터 간증기도 요청을 받고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간증은 어려운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했다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경험했거나, 확실한 회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증이라고 할 것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하기가 망설여졌지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50여 년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 번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절친의 전도, 김남준 목사님의 책들, 열린교회 다니는 김집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과 부활절, 전도 잔치에 가끔 절친을 따라 교회에 갔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의 적극적인 전도로 구원의 확신이나 회심의 경험 없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셔서 별 어려움 없이 교회에 다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함에 지쳐서 예배시간에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막연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지인 분이 개척하신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라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고 기도를 통해 감정적인 문제는 다소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영혼의 곤고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폐지 속에 있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와 집어 들고 보니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재활용 바구니를 던져놓고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감격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없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족의 잘못된 예배를 드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어보지 못한 책 내용이 궁금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김남준 목사님의 책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개으름', '돌이킴', '죄와 은혜의 지배', '개념 없음', '자기 깨어짐'... 혼자서의 독학으로 이제까지의 나의 종교생활이 잘못 났다는 것, 어렵듯이 진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지한 지성으로는 수박 겉핥기만 할 뿐 진리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잠시 감격을 맛보지만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의 틀이 없어서 쏟아져 흐트러진 퍼즐 조각처럼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고 진리를 깨닫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열린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 김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야기를 나누면서 열린교회를 소개받고 온라인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들을 때에는 잘 들리지도 않았고, 한 주제의 시리즈 말씀은 너무 길어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반복해서 듣다보니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집사님은 제 신앙이 기복적이며 분별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열린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섬기던 교회가 미자립 교회였고 거리가 멀다는 생각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1년간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만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섬기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 올해 1월 5일 열린교회에 등록했고 새가족교육, 성장반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12기 교리반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열린교회에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온라인으로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설교, 퓨리턴도서관 서점입니다.

**그 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새가족교육과 성장반교육을 통해서 형식적이고 자기만족적 예배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면서 목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교리공부는 이제 1강을 들었지만 1강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오직 하나님께로 열중하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단호히 결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열린교회와 함께 진리 탐구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되돌아보거나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매일 매일 솟아오르는 인간적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박찬동 김원호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이성도 김동기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전오섭
-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 강도사 명성인
-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김경혜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백상환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 교육전도사 김민성 김수민 이신우 김민정 김진산 홍대권 이두호

## 파송선교사

-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새벽기도	*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성경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 안양 8, 8-1 군포 540, 8
-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